『제2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解放 50주년, 세계 속의 韓國學』 別刷

韓國語辭典의 現況과 問題

南 廣 祐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5年 5月 25日

韓國語辭典의 現況과 問題

南 廣 祐*

古語辭典·韓國語標準發音辭典·韓國漢字音訓變遷辭典

나는 1960년에 『古語辭典』을, 1971년에는 그 補訂版을 내었으며, 1984년에는 『韓國語標準發音辭典』을 발행하였고, 그에 이어 현재는 『韓國漢字音訓變遷字典』과 『古語大辭典』(假題)의 完刊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Ⅰ. 古語辭典

머릿말

해방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어사전 한 권 갖지 못하였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일사(一簑) 方鍾鉉 선생의 《古語材料辭典》 전·후집이 1946·7 양년에 걸쳐 프린트판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선생의 10여년에 걸친 꾸준한 재료 수집의 결정체로 이것이 학계에 끼친 공헌은 큰 바 있었으며, 이 《고어재료사전》에 이어 나온 李常春〔뒤에 李永哲씨 이름으로 바뀌었음〕, 정희준〔뒤에 劉昌惇씨 증보〕編 《고어 사전》 등이 각각 학계 및 교육계에 비익된 바 컸으리라 보며, 그 先功을 치하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어 사전들은 해방이 되자 황망히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반 실정으로 학자들의 연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 인쇄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후진적 조건 밑에서 나온 관계로 여러 미비점이 있음은 否認하지 못할 일로, 학계나

* 仁荷大學校 名譽敎授

교육계에서 더 나은 고어사전의 출현을 고대하는 소리가 높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이 《고어사전》이 시기적으로 이러한 기대 속에 간행을 보게 된다는 자체에 대하여 편자는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는 바이다.

編纂경과

1. 1949년 5월 경 方鍾鉉선생(前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 뒤에 學長 역임)께서 사전편찬을 거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어 처음에는 《俗談大辭典》에서 속담을 추리고, 다음으로는 《고어재료사전》에서 고어를 추리기로 하여, 이 일은 6·25사변 중에도 줄곧 계속되었다.

2. 그러나 사변의 추이는 이 사전편찬 사업의 계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方선생의 피난지 부산에서의 작고는 마침내 이 일의 중단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3. 그 후 나는 피난지 大邱에서 기왕에 추렸던 고어를 버리기도 아까워, 뜻을 바꾸어 고어사전 편찬에 착수한 것이니 그것은 1951년 가을이었다.

4. 그리하여 처음에 원고지에 썼던 것을 카드에 옮기고 《고어재료사전》에 실린 자료는 물론, 대구의 金永驥 : 慶北高校長, 千時權 : 慶北大敎授, 兪昌均 : 靑丘大敎授, 沈載完 : 靑丘大敎授, 崔正錫 : 曉星女大敎授 등 여러분의 藏書와 경북대학교 도서관 所藏本을 빌려다가 자료를 추리고 다시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찍어낸 海印寺板 각종 諺解本에서 자료를 추려 일단 카드 작성을 마치고, 1954년 겨울에 서울 壯文社와의 사이에 출판 口頭契約이 맺어졌다.

5. 그 뒤 장문사의 사정으로 조판에 착수 못한 채, 저자가 前 직장 경북대학교에서 이곳 서울의 中央大學校로 옮겨 온 것이 1956년 4월이요, 귀경 후 장문사 양해하에 동아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1957년 10월이었는데, 카드 작성은 계약 전후를 통하여 다시 계속되었으니, 즉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연구실, 一簑文庫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립도서관,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藏本과 개인의 所藏本으로서는 李秉岐 : 前서울大文理大敎授, 李熙昇 : 서울大文理大學長, 李崇寧 : 서울大文理大敎授 세 恩師의 것을 비롯하여, 崔鉉培 : 延世大敎授, 劉昌惇 : 延世大敎授, 金敏洙 : 高麗大敎授, 鄭輝萬 : 慶熙高敎師, 李謙魯 : 通文館社長 등 제씨의 것에 私藏本을 합하여 나대로는 어지간한 정력과 시간을 자료 수집에 바쳤다.

6. 조판이 시작된 것은 계약이 된 다음 해인 1958년 봄이었던가 하며, 그로부터 2년

하고도 반, 7校까지를 거치는 동안에 숱한 고어 활자나 한자의 벽자(僻字) 활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였고, 거기에다 저자의 욕심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때마다 보충을 하느라고 6교까지에도 보충 원고를 넣어 새로 짜다시피 했다는 점 등이 이 〈고어사전〉이 더디게 세상에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이다〈以下 略〉

1960年 7月 17日 制憲節날

古語辭典에 대한 客觀的 評價로 "우리학과 명저순례"(새소식 11호 서울대 국문과 동창회)라는 金文昌(19회·인하대 교수)의 〈南廣祐, 《補訂 古語辭典》〉 (一湖閣, 1971) 評文을 옮기기로 한다.

(1) 蘭汀 南廣祐 교수의 「補訂 古語辭典」은 우리 학계의 빛나는 금자탑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전보다 앞서 이미 몇 종의 고어사전류가 간행된 일이 있으니, 질과 양의 면에서 기존 업적들에 비하여 南교수의 사전이 단연 올연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이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노작이 별달리 보고된 바 없다는 점에서 南교수의 업적은 여전히 斯界의 소중한 성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著者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재학시절부터 준비한 결과였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2) 이 사전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려면, 우선 다른 고어사전들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계에 보고된 고어사전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連 番	年 度	著 者 名	書 名
①	1946	方 鍾 鉉	古語材料辭典 前集
①	1947	方 鍾 鉉	古語材料辭典 後集
②	1948	丁泰鎭 · 金炳濟	朝鮮古語方言辭典
③	1949	鄭 熙 俊	朝鮮古語辭典
④	1949	李 常 春	조선옛말사전
⑤	1953	李 永 哲	옛말사전
⑥	1955	劉 昌 惇	古語辭典
⑦	1960	南 廣 祐	古語辭典
⑧	1964	劉 昌 惇	李朝語辭典
⑨	1971	南 廣 祐	補訂 古語辭典
⑩	1976	全 圭 泰	古語辭典

① 方鍾鉉의 「古語材料辭典」은 한국 고어사전의 효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至大하다고 하겠다. 이 사전은 동학 및 후학들에게 하나의 典範이요, 자극제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前集이 1946년 東農社에서, 後集은 다음 해에 東省社에서 각각 프린트판으로 간행되었다. 뒷날 이것은 희귀본이 되어 구할 길이 없게 되자, 1983년 弘文閣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비로소 후학들이 다시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활자본이 아닌 프린트판이라는 것, 어휘해석 즉 뜻풀이가 없다는 점 등이라 하겠다. 〈中略〉

⑦ 南廣祐교수의 《古語辭典》은 東亞出版社에서 1960년 9월에 간행되었다. 表題語數가 1만 1315개, 出典 206종, 四六版 553面으로 그 당시 최대 최고의 업적이었다. 이에 걸맞게 출간되던 해 10월에 韓國日報社가 主宰하는 韓國出版文化賞(著作賞) 제1회 受賞圖書로 선정되었다. 그 뒤로는 韓國圖書館協會選定優良圖書로 거듭 뽑히는 등 최초의 본격적인 고어사전으로서의 聲價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著者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완작업을 계속하여 11년 뒤에는 좀더 손질한 사전을 새로 냈으니 그것이 ⑨의 《補訂 古語辭典》이었다.

⑨ 南廣祐교수의 《補訂 古語辭典》은 一潮閣에서 1971년 간행되었으며, 그 체제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 : 表題語 11,315개(pp.1~500)
부록 : Ⅰ. 引用圖書解題(pp.501~546)
Ⅱ. 15世紀語 添用·活用形 一覽(pp.547~553)
補訂 : 表題語 1,263개(pp.555~597)
(全表題語數 : 12578개)
(出典數 : 206종 이상)

이상으로써 「補訂 古語辭典」의 특성 및 그 의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한다.

첫째, 문헌제시용 참고문헌이 최대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用例의 出處를 밝히기 위하여 現存 古典文獻이 206종 이상 다량 동원되어 표제어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둘째, 표제어가 1만 2578개로, ⑧ 유창돈에 버금가는 최대의 양이다.

셋째, 표제어의 선정·뜻풀이 방법 및 출전 제시의 풍부성 등에서 여타 사전에 비하여 뛰어나다.

넷째, 부록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준다.

다섯째, 量과 質 양면에 걸쳐 명실공히 우리 학계의 최대 명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著者 및 本書는 이 방면의 개척자로서 또한 본격적인 저술로 기념비적 典範을 보여준 획기적 명저로서, 유창돈의 저술과 함께 학계의 雙壁으로 오래 남아 기억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의 모든 사전에 공통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 사전은 역사적 즉, 각 시기의 공시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각 어휘의 통시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운·형태·의미 등 통시적 변화양상도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古語大辭典》의 출현이 기다려지는 바이다. 南廣祐 교수는 이 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책 서문에서도 '기약'한 바 있었거니와, 지난 20여년 동안 새로 발굴된 전적에서 새로운 자료를 광범위하게 꾸준히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서 빨리 보다 완벽한 《大古語大辭典》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現在 完刊을 서두르고 있는 新編『古語大辭典』(假題)의 序文과 일러두기는 다음과 같다.

序 文

나는 1960년 9월에 東亞出版社에서 古語辭典을 낸 바 있고 그 후 1971년 4월에 一潮閣에서 그 補訂版을 낸 바 있다. 初版이나 補訂版이 상당히 普及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완벽한 것이 아님을 불만스럽게 생각해왔고 利用者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다.

이번 敎學社 楊澈愚社長의 厚誼로 새 版이 나오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책 안 읽는 風土에서 不況인 出版界임을 잘 알고 있는 터에 打算을 떠난 篤志에 敬意를 표한다.

본격적인『古語大辭典』의 출현을 위해 내 나름대로는 꾸준히 資料수집을 해왔다.

中央大 在任기간(~73. 2)이나 仁荷大 在任기간(73.2~85.8)은 물론, 停年퇴임 후(85. 8~)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걸친 作業이었다.

博士學位 논문(69.2)준비, 韓國語文敎育硏究會의 일(69.7~현재), 9년간의 補職생활(73.3~82.2), 發音辭典을 비롯한 몇 권의 著書, 光復 후 최초의 國漢混用으로 만들어진 국민학교 敎材인『韓國語』(栗村奬學會 硏究費 支援) 出版의 사이사이에 새로 發見되어 發行된 古文獻이거나 이미 調査된 문헌에서도 새 資料가 발견되면 틈틈이 追加하는 등

작업을 진행했었다.

이 작업의 進行過程에서 文敎部(現 敎育部)의 硏究支援(78.6~79)을 받기도 하여 鄭琦鎬박사(仁荷大 敎授) 등 몇 분 敎授의 협조를 받기도 하고 資料카드 移記 등을 도와준 講師(閔丙俊씨 등)·助敎·國語敎育科 學生 諸君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新版刊行 關聯資料〉

1. 刊行社 및 代表	(株)敎學社	楊澈愚
2. 組版社 및 代表	(株)東國電算	洪佑東
3. 編纂主幹	徐德洙	
編纂員(원고정리, 교정)	宣奇德 黃貞淑 柳敬美	
4. 編纂企劃	1992. 9. 10~1992. 11. 30	
原稿整理	1992. 12. 1~1994. 4. 30	
見樣組版	1994. 5. 27~1994. 6. 6	
組版送稿	1994. 6. 24	
校正始作(初校)	1994. 8. 16~	

일러두기

1. 編纂方針(편찬방침)

(1) 이 古語辭典은 옛 문헌에 기록된 우리의 古語를 최대한(새로 發見되어 發刊된 文獻 포함)으로 採錄(채록)함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2) 이 古語辭典은 古語 채록에서 固有語에만 국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옛 漢字語도 두루 채록했다.

(3) 이 古語辭典은 現代語와 같은 表記의 옛 단어들도 古語로 다루어 그 쓰임의 같음과 다름을 보이기로 했다.

(4) 이 古語辭典은 다양한 用例(용례)를 時代順으로 수록하여 시대에 따른 國語의 변천 모습을 分明히 살펴볼 수 있게 했다.

(5) 採錄語彙(어휘)의 年代 上限線(상한선)과 下限線을 넓히는데 힘썼다.

(6) 添用形(첨용형)과 活用形도 다양하게 採錄(채록)하도록 하였다.

2. 標題語(표제어)

(1) 이 古語辭典에는 여러 字母와 竝書(병서)를 標題(표제)로 실었다.

(2) 이 古語辭典의 標題語(표제어)는 固有語와 漢字語로 크게 나뉜다.

(3) 實辭(실사)-體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用言으로 동사, 형용사, 修飾言(수식언)으로 관형사, 부사, 獨立言인 감탄사를 실었다. 虛辭(허사)-關係言(관계언)인 조사와 用言과 어미, 접두사, 접미사를 실었다.

(4) 調聲母音(조성모음), 接尾素(접미소)인 接尾音도 표제로 실었다.

(5) 漢字語 標題語의 漢字音은 原典표기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표기가 漢字로 되어 있는 경우, 東國正韻式 漢字音이 아닌 그 당시의 現實音으로 고쳐 실었다.

以下 3.~9. 〈중략〉

10. 辭典의 體裁

(1) 版型 : 4·6版

(2) 體裁 : 二段 橫組

(3) 標題語 活字 : 10·8級 고딕體

本文活字 : 10級 明朝體

(4) 豫定面數 : 4·6版 1,600面 內外

II. 韓國語標準發音辭典

南廣祐·李喆洙·兪萬根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11. 30發行

머릿말

암흑의 일제시대, 우리말과 글의 교육이나 연구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었던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국이 광복된 지도 수십년의 긴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아직

本格的인 우리말 發音辭典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기야 여러 종류의 국어사전이 있어 그 사전의 표제어에 긴소리나 사이된소리 등의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전들은 앞 辭典을 그대로 따랐거나, 現實發音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첨단적으로 앞서가는 發音을 따른 사전도 있고, 어떤 것은 編纂者의 出身地域의 발음이 영향을 끼친 듯한 사전도 있으며, 綴字發音에 치우친 경향이나 관념적으로 規格化하려는 경향 등 갖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마디로 科學的인 硏究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제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권의 本格的인 標準發音辭典이 있음직하다. 先進國들이 모두 發音辭典이 있는 터에 우리만 뒤질 수는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발음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 마땅히 올바른 發音敎育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國語醇化라는 면에서도 이 문제는 크게 浮刻되어야 한다.

표준국어발음의 普及으로 全國民이 같은 말을 쓴다면 國民總和는 이미 절반 이상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地方色을 돋보이게 하는 사투리발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역간의 편견과 違和感이 생기는 것은 현대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國家統治, 특히 國民總和에 國語統一 醇化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한 유럽 각국은 翰林院을 통하여 그 나라의 국어를 統一·整理·醇化해 왔다.

철자가 발음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正書法의 정리로 표준발음의 보급이 쉽게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發音辭典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現代國語의 경우, 母音의 장단이나 '사이 된소리' 등 現行 맞춤법에 반영되지 않은 音韻 때문에 맞춤법만 가지고는 사투리 사용자가 진정한 표준발음을 배울 수 없으므로 따로 발음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선진 각국에는 으레 권위있는 발음사전이 있고(佛 P. Fouché의 「발음사전」, 日平山輝南의 「악센트사전」 등),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경우, 1917년에 初版이 나온 D. Jones의 「영어발음사전」은 그 후 계속 판을 거듭하여 1967년에 제13판이 나왔고, 지금도 영국 안에서는 물론 全유럽·아프리카·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영어발음 교육상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즉 순우리말이나 漢字말 발음의 混濁現象의 要因은 다음과 같다.

1) 訓民正音制定 후 壬亂에 이르기까지는 聲點표시를 하여 발음의 典範을 보인 것인데, 壬亂·丙亂 등으로 우리말 표기의 規範性이 무너지고 傍點표시가 없어졌다.

2) 三韻聲彙·奎章全韻 등이 있으나 中國韻書의 四聲 그대로여서 上·去聲은 현실 聲調와 距離가 있다.

3) 池錫永의 字典釋要나 總督府사전 이래의 현대어 사전에 발음표시가 있으나 각 사전 사이에 통일성이 없다.

4) 1934년 표준말査定 때 긴소리·사이된소리 등 표준발음 査定을 하지 못했다.

5) 日帝下 국어교육의 不在(이른바 조선어교육이 행해지기는 했으나 日語敎育에 比해 시간수가 적었으며 그나마도 1938년에는 隨意科目〈오늘날의 선택과목〉으로 되었었고 1941년에는 폐지됨)로 傳承발음 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한편 日本漢字音의 영향을 받았다.

6) 8·15해방과 6·25사변으로 인한 越南同胞나 피난민의 이동 등이 있어 서울발음의 혼란이 빚어졌다.

7) 해방, 6·25, 4·19, 5·16, 10·26 등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는 사이의 연달은 혼란상태나 대모事態 등으로 人心은 메마르고 각박해질대로 각박해져서인지 이것은 사람의 心性에도 적잖이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된소리化 경향에서 그점을 느낀다.

8) 지금까지 국어교육에 있어 읽기·쓰기 중심의 敎育으로 말하기·듣기의 敎育이 소홀해서 發音敎育은 不毛地帶였다.

9) 한글전용 방향의 교육으로 漢字聲調에 대한 認識이 缺如되어 있고, 따라서 발음교육이 있을 수가 없었다.

10) 혹 발음교육에 뜻이 있는 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준발음이 定立되어 있지 않았다.

11) 학교 敎師나 라디오·TV 등 放送員이나 出演人士들의 잘못된 발음에 의한 오염이 또한 크다.

그러나, 그 要因이야 어디에 있건 多數言衆(서울말을 쓰는 교양있는 壯年層)의 現實發音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표준발음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한국어표준발음사전」의 편찬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필자가 우리말의 發音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9월부터다.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논문을 발표해 왔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國語

發音의 有關論文은 22편에 달한다. 이들 論文을 정리하여 아래의 두 권으로 묶었다.

韓國語의 發音硏究〔Ⅰ〕-순우리말과 漢字말의 표준발음을 중심으로(84.10.-潮閣)

韓國語의 發音硏究〔Ⅱ〕 常用漢字 및 漢字말의 표준발음硏究-긴소리·사이된소리를 중심으로(84.12. 仁荷大 出版部)

國語發音辭典의 필요성을 切感하여 발음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은 1957년 국어국문학회편 「국어새사전」(1958. 3. 발행)의 긴소리표시를 검토하는 일을 맡은 후였다.

1973년 1월부터 「한국어표준발음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약 7만 단어에 달하는 標題語를 선정하여 한글 발음표시와 뜻풀이까지 하여 辭典 편찬을 위한 원고작성의 일을 끝마친 것이 1978년 9월이었다.

이러던 중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硏究費 支援을 받아 '國語發音辭典 편찬을 위한 調査硏究'에 착수했다. 197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필자를 代表 硏究者로 李喆洙(현 仁荷大 교수, 國語學·國語敎育), 兪萬根(현 成均館大 교수, 言語學·音聲學)을 硏究者로 하여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순수한 發音辭典 편찬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정리하였다. 초·중·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수집하였고, 국어조사연구회의 '표준말 자료'(1970), '새로 정한 표준말'(1972), '표준말 재사정 시안'(1979)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문교부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語彙使用頻度調査)(1956)도 참고하였다. 또한 여러 국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필요한 標題語를 선정하였다.

한편, 國語發音辭典 편찬을 위한 調査·硏究계획에 따라 發音記錄에 관한 設問紙를 작성하여 國語國文學 및 言語學부문의 학자와 發音指導에 관심을 가진 국어과 교사 및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設問해서 응답을 받았으며, 1980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1泊 2日間에 걸쳐 '國語發音辭典편찬을 위한 세미나'를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20명 교수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이 사전이 나오기까지에 애써주신 韓國精神文化硏究院 語文硏究室長 兪昌均, 金忠會, 宋基中, 趙東一 諸氏와 이 일을 도와준 仁荷大 師大 國語敎育科 助敎·學生들에게 謝意를 표한다.

本 辭典의 活用과 效用

本 辭典은 다음과 같이 活用되기를 기대하며 醇正한 국어, 우리 民族이 통일된 國語生活을 하기 위한 표준 발음사전으로서의 效用을 거둘 수 있도록 뜻있는 人士들의 협조와 활동을 또한 기대한다.

(1)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바른 發音指導를 할 수 있도록 主婦나 未婚女性들이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發音指導를 할 수 있도록 敎員들이

(3) 社會에서 온 國民에게 바른 발음을 자연스럽게 귀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放送媒體에 종사하는 放送員이나 出演人士들이

(4) 軍隊에서 군인들이 醇化된 국어를 쓸 수 있도록 指揮官들이

솔선해서 本 辭典의 活用으로 自體硏修와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다른이에게 바른 발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모든 국민이 呼應해서 文化民族으로서(傳統的으로 連綿히 이어온 醇正한 국어의 사용으로) 地域感情을 해소하고 一體感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專攻學徒들의 연구자료로는 물론, 외국인의 韓國語 학습자료로도 效用이 있을 것이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984. 11. 30.

南 廣 祐

일 러 두 기

Ⅰ. 한국어의 音聲目錄과 그 記號 (앞 部分 略)

(1)~(11) 略

本辭典에 사용된 국제음성기호(IPA)와 補助記號는 다음과 같다.

ɓ 바람[ɓaram]의 ㅂ
입술[iɓs'ul]의 ㅂ
b 지붕[jibuŋ]의 ㅂ
p' 뿔[p'ul]의 ㅃ

pʰ 풀[(pʰul)]의 ㅍ

ḍ 달[(ḍal)]의 ㄷ
곧바로[(ǧoḍp'aro)]의 ㄷ
d 바다[(ḅada)]의 ㄷ
t' 땅[(t'aŋ)]의 ㄸ
tʰ 토끼[(tʰok'i)]의 ㅌ

ǧ 가을[(ǧaɯl)]의 ㄱ
목숨[(moǧs'um)]의 ㄱ
g 얼굴[(ʌlgul)]의 ㄱ
k' 까치[(k'a:cʰi)]의 ㄲ
kʰ 콩[(kʰoŋ)]의 ㅋ

ǰ 저울[(ǰʌul)]의 ㅈ
ɟ 어제[(ʌɟe)]의 ㅈ (dʒ 의 代用)
c' 짝[(c'aǧ)]의 ㅉ)((tʃ' 의 代用)
cʰ 춤[(cʰum)]의 ㅊ ((tʃʰ 의 代用)

m 물[(mul)]의 ㅁ
n 나무[(namu)]의 ㄴ
ɲ 어머니[(ʌmʌɲi)]의 ㄴ
ŋ 지붕[(ǰibuŋ)]의 ㅇ
l 말씀[(ma:ls'ɯm)]의 ㄹ
r 우리[(uri)]의 ㄹ (ɾ 의 代用)
ɾ 빨리[(p'aɾʌi)]의 ㄹ

s 사람[(sa:ram)]의 ㅅ
ʃ 쉰[(ʃɥi:n)]의 ㅅ
ʃ' 씨[(ʃ'i)]의 ㅆ

s' 쌀[(s'al)]의 ㅆ
h 하늘[(hanɯl)]의 ㅎ

w 원숭이[(wə:nsuŋi)]의 ㅜ
ɥi 쥐[(ʃɥi)]의 ㅟ
wi 위[(wi)ː, 휘[(hwi)]의 ㅟ
j 옛날[(je:nnal)]의 ㅖ 소리에 내포된 첫소리 또는 의사(醫師)[wjsa]의 ㅢ 소리에 포함된 끝요소

i: 실(絲)[(ʃi:l)]의 ㅣ
i 이름[(irɯm)]의 ㅣ
e: 셋(三)[(se:ḍ)]의 ㅔ
e 에누리[(enuri)]의 ㅔ

ɛ: 개(犬)[(ǧɛ:)]의 ㅐ
ɛ 매듭[(mɛɖɯḅ)]의 ㅐ
a 아들[(aɖɯl)]의 ㅏ
a: 밤(栗)[(ḅa:m)]의 ㅏ
ʌ 어디[(ʌdi)]의 ㅓ
ʌ: 열(十)[(jʌ:l)]의 ㅕ 소리에 내포된 ㅓ

o 오늘[(onɯl)]의 ㅗ
o: 곰(態)[(ǧo:m)]의 ㅗ
u 꿀[(k'ul)]의 ㅜ
u: 둘(二)[(ḍu:l)]의 ㅜ

ɯ: 그림(畫)[(ǧɯ:rim)]의 ㅡ
ɯ 그늘[(ǧɯnɯl)]의 ㅡ
ɯ̆i 정의(正義) 정 : 의/정 : 이[(ǰə:ŋɯ̆i)]의 ㅢ소리
ə: 언제[(ə:nǰe)]의 ㅓ

ə 각면(各面)[gaŋmjən]의 ㅕ 소리에 내포된 ㅓ

한글 發音表示에 사용한 補助記號는 다음과 같다.

: 長音表示 〈예〉 없다 업:따
· 半長音表示 〈예〉 어림없다 어리 멉:따
+ 舌前進(齒莖音化)表示 〈예〉 무늬 무+니
ˉ(+의 代用) 高舌化表示 〈예〉 어른 어:른
각면(各面) 강면

IPA 發音 表示에 사용한 補助記號는 다음과 같다.

◦ 無聲音表示 〈예〉 길[gil]([b, d, g]를 각각 p, t, k로 표기하는 체계도 있음)
ʰ 有氣音表示 〈예〉 털[tʰʌl]
, 된소리表示 〈예〉 꽃 꼳[k'oḍ]
학교(學校) 학꾜[hagk'jo]
‿ 音節副音(半母音化)表示 〈예〉 의(義) 의/이[ɯi]

II. 본 발음사전의 구성과 體裁

1. 標題語의 선정

(1) 발음사전에 수록된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初·中·高의 敎科書에 나오는 말과 현대문학 작품·신문·잡지 등에서 보충하였다.

(2) 古制度語·人名·地名 등 고유명사는 初·中·高 교과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수록하였다.

(3) 「표준말 자료」(1970)에 들어 있는 어휘는 모두 수록했고, 좀 생소한 단어라도 發音에 유의해야 할 말은 수록하였다.

(4) 外來語는 借用된 지가 오래되어 우리말처럼 慣用되는 借用語만을 선정하여 附錄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2. 標題語의 배열

모든 標題語는 다음의 차례에 따라 배열한다.

(1) 初聲 : ㄱ(ㄲ), ㄴ, ㄷ(ㄸ), ㄹ, ㅁ, ㅂ,(ㅃ), ㅅ(ㅆ), ㅇ, ㅈ(ㅉ), ㅊ, ㅋ, ㅌ, ㅍ, ㅎ

(2) 中聲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3) 받침(終聲) :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괄호속의 初聲글자는 그 괄호 앞의 字母와 함께 섞어 배열한다.

3. 標題語의 發音表示

(1) 發音表示 : 발음표시라 함은 한글 字母나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여 발음 사실을 記述함을 말한다. 한글 발음표시는 주로 簡略表記 broad transcription의 방식을 따르되 국제음성기호 발음표시는 다소 精密表記 narrow transcription 방식을 가미한다. 이것은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音素 및 變異音에 통달하지 않은 외국인 초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音聲的 실상을 좀더 정밀하게 알려줌으로써 실제 학습에서 그의 발음을 정확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2) 發音表示의 段階(범위) : 발음표시의 단계는, 첫째로 個別 單語의 발음을 기록하는 단계, 둘째로 體言에 토가 添用되거나 複合 혹은 派生하거나, 用言이 活用할 때의 발음을 기록하는 단계, 셋째로 문장이나 句에서의 發音變動을 기술하는 단계 등 세가지 단계가 있는데, 本辭典에서는 둘째 단계까지의 발음을 記述한다.

(3) 發音表示의 순서 : 標題語의 발음표시는 표제어 옆에 한글 발음표시를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補助記號를 사용한다), 국제음성기호 IPA를 [ ] 안에 併記한다.

한글 발음표시는 주로 국어사용 話者를 위한 것이고, IPA 發音表示는 국어사용 話者는 물론 外國人도 참고·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標題語의 綴字와 한글 발음표시가 같은 경우 :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한글 발음표시는 하지 않고 IPA 發音記號만 기록한다.

사랑 [saraŋ]

(5) 長音表示 : 長音表示는 길게 소리내는 完全長音表示(全長表示)/:/와 약간 길게 소리내는 半長音表示 /·/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한글 발음표시에서의 長音表示는 각각 長音으로 발음되는 音節의 오른쪽에, IPA 발음표시는 長音으로 발음되는 母音의 오른쪽에 표기한다.

웃다 운:따[⟨u:ɖt'a⟩]
감기(感氣) 감:기[⟨ɡa:mgi⟩]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
자연보:호-헌:장[⟨ɟajʌnbo·ho-hə:nɟan⟩]
경황없다(景況~) 경황업:따[⟨ɡjʌŋhwaŋə·bt'a⟩]
가건물(假建物) 가:건:물[⟨ɡa:gə·nmul⟩]
분석연구(分析硏究) 분성년:구[⟨ɓunsʌŋnə·ngu⟩]

(6) 경우에 따라 한 標題語에 두가지 발음이 共存하는 경우는 斜線 /을 그어, 앞쪽에 綴字原音에 충실한 발음을 기록하고, 뒤쪽에 多數言衆의 현실발음을 표기한다. 현실발음이 綴字原音과 현격하게 다른 것은 괄호 안에 한글발음표시를 하여 나타내 보인다.

나쁘다 으변 나쁘다/(나뿌다)[⟨nap'ɯda/— p'u —⟩]
좋아 조:아/(조:와)[⟨ɟo:a/— wa⟩]
일어서다 이러서다/(——스다)[⟨irʌsʌda/— sɯda⟩]
괴괴망측(怪怪罔測) 궤궤망측/(——망칙)[⟨ɡwegwemaŋcʰɯɡ/— cʰiɡ⟩]
괄시(恝視) 괄씨/(괄쌔)[⟨ɡwalʔ'i/— s'e⟩]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할 때와, 조금 빠르게 발음할 때, 서로 다르게 발음의 變動이 생길 경우, 두 가지의 발음표시를 斜線/ 앞뒤에 기록한다. 斜線/ 앞쪽이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할 때의 발음표시고, 뒤쪽이 조금 빠르게 발음할 때의 발음표시다. 이 때의 斜線/은 두 發音의 共存과 同等한 자격임을 나타내는 標識다.

가들막하다 가들막카다/——마카다[⟨ɡadɯlmaɡkʰada⟩]
답답하다 답땁파다/답따——[⟨ɖabt'abpʰada⟩]
갸웃하다 갸운타다/갸우——[⟨ɟjauɖtʰada⟩]
급행(急行) 급팽/그팽[⟨ɡɯɓpʰɛŋ⟩]
고요히 고요히/고요이[⟨ɡojohi⟩]

(7) 精意的 表現에 따라 長短 양쪽으로 다 발음되는 단어는 完全長音表示를 괄호( )로 묶어 情義的 表現의 발음 표시임을 나타낸다.

노랗다 노(:)라타[⟨no(:)ratʰa⟩]
누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nuɾɯsɯɾɯ(:)mhada⟩]

(8) IPA 音聲記號의 斜體(이탤릭體)表示 : 단어 안에서 한 子音(半子音 포함)이 발음될 때와 발음되지 않을 때가 동등한 자격으로 共存할 경우, IPA 表記는 해당 子音을 斜體로 하여 그 소리가 流動的임을 나타낸다.

/ㅎ/의 流動 : [*h*]
많이 만:히/마:니[⟨ma:ɲhi⟩]
/ㄱ/의 流動 : [⟨*ɡ*⟩]
학교(學校) 학꾜/하꾜/[⟨haɡk'jo⟩]
/ㄷ/의 流動 : [⟨*ɖ*⟩]
갸웃하다 갸운타다/갸우타다[⟨ɟjauɖtʰada⟩]
/ㅂ/의 流動 : [⟨*ɓ*⟩]
급행(急行) 급팽/그팽[⟨ɡɯɓpʰɛŋ⟩]
/j/의 流動 : [⟨*ʲ*⟩]
되어 뒈어/뒈여[⟨ɖwejʌ⟩]
/ɯ/의 流動 : [⟨*ɯ̆*⟩]
주의(主義) 주의/주이[⟨ɟuɯ̆i⟩]

(9) '의'의 發音表示 : 단독으로 쓰일 때는 / ɯ̆i /를 원칙으로 하되, 語頭에서럼 /ɯɪ/

音에 힘주어(강하게) 발음할 경우는 / ɯj /로 표기하고, 語頭 아닌 音聲環境, 특히 語末에서는 /i/로 표기한다. 그리고 所有格 조사 '의'는 /e/로 표기한다.

[ɕɯi] 의(義) [ɕɯi]
[ɯj] 의정부(議政府) [ɯjɟʌŋbu]
[i] 주의(主義) 주의/주이 [ɟuɕɯi]
[e] 나의 집 나에-집 [nae-ɟib]

(10) '위'의 發音表示 : '위'의 IPA表示는 /wi/와 / ɥi/로 한다.
① 첫소리가 /零, ㅎ, ㅁ, ㅂ, ㅃ, ㅍ/일 때는 /wi/로 표기한다.

위〈上〉 [wi]
휘다 [hwida]

② 첫소리가 /ㄱ, ㄲ, ㄴ, ㄷ, ㄸ, …/등 ①항 이외의 경우는 / ɥi /로 표기한다.

쉬 [ʃɥi]
쥐 [ɟɥi]

(11) 사잇소리 /ㅅ/의 發音表示 : /ㅅ/이 語源的 어간의 일부가 아닌 사잇소리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發音表示한다.

바닷가 바다까 [ɓadak'a]
혓소리 혓쏘리 [hjʌss'ori]
잇몸 인몸/임몸 [inmom/immom]
콧날 콘날 [kʰonnal]
뒷일 뒨:닐 [ɖɥi:ɲnil]

그러나 /ㅅ/이 어원적 語幹의 일부일 때에는 /ㄷ/으로 발음표시한다.

거짓부렁 ᄀ:짇뿌렁 [ɠəːjiɖp'urʌŋ]
놋그릇 노끄른 [noɖk'ɯrɯɖ]

(12) 品詞類에 따른 發音表示 略

4. 略號 및 符號
(1)~(3) 略

刊行辭·머릿말·일러두기 18面
本文·附錄 1017面
外來語에 대한 외국어 原音表記의 국어 現實音 대조표 포함

總 7萬5千單語 內外

Ⅲ. 韓國漢字音訓 變遷辭典

序 文

本 字典 出刊의 動機

지금까지 國內에서 發刊된 漢韓大辭典이나 字典類가 여러 種類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굳이 『韓國漢字音訓變遷字典』을 내려 함은 까닭이 있다.
이제까지 中·日에서 나온 漢字字典·辭典類로는 유명한 「康熙字典」(1716년)〈諸橋註에 의하면 49,020字〉이 있고 日本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1959년)이 約 5萬字 수록되어 있으며 臺灣에서 나온 「中文大辭典」(1973년)이 49,888字를 收錄하여 나왔고 中國에선 300여 명의 學者들이 10년간 執筆한 끝에 「漢語大字典」(1991년) 총 8책이 完刊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李家源·張三植 共著의 「詳解 漢字大典」이란게 있고 東亞出版社 「漢字大辭典」과 金敏洙 「새字典」이 있다. 방대한 「漢韓大辭典」을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에서 그 出刊을 진행 중에 있으며 敎學社도 같은 大辭典의 刊行을 서두르고 있는 중

이다.

그런데 編者가 構想한 것은 이러한 방대한 것이 아니다.

朝鮮朝에 나온 三韻聲彙(英祖 1746년 刊)에 12,965字, 奎章全韻(正祖 1796년 刊)에 13,345字가 실려 있는데, 이들 중 實用된 漢字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포함해 字典釋要나 新字典 등에서 實用 例가 있는 것과 用例도 採錄하여 實用字典 性格의 것을 하나 엮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編者가 펴낸 「朝鮮(李朝) 漢字音研究」〈壬亂前 現實漢字音을 중심으로〉(1969. 3, 4×6倍版, 190面, 東亞出版社, 重版 一潮閣)에는 四書諺解(두 가지 以上의 漢字音이나 聲調 延計算 총 2,420字)를 비롯한 각종 諺解文獻이나 訓蒙字會(3,360字) 新增類合(3,000字) 千字文 등 字學書에서 추려내어 研究對象으로 한 漢字는 總 5,945字다. 1960년 古語辭典을 펴낸 바 있는 編者는 곧이어 漢字의 音 研究를 시작하여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1966. 4., 菊版, 320面, 韓國研究院), 「朝鮮(李朝) 漢字音 研究」를 끝낸 것이다. 이 字典 편찬은 그 後續作業으로 漢字의 訓 研究를 進行 중 그 필요에 의해 構想해 오던 것으로

1. 漢字의 標準音·訓을 設定한다.
2. 漢字의 音·訓(釋)·聲調가 訓蒙字會(比叡山本·東中本·尊經閣本·東國書林本), 新增類合, 千字文(光州·石峰·註解本), 字類註釋, 兒學編, 字典釋要, 新字典, 倭語類解와 經書諺解나 그밖의 諺解文獻에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通時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생각에서 종래의 字典類와는 다른 特色있는 이 字典 편찬을 企圖한 것이다.

本 字典 出刊의 意義

1.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康熙字典이나 中文大辭典 漢韓大辭典 등 큰 字典이나 辭典을 필요로 하는 人士는 현저히 줄어 들었고 臺灣에서조차 1萬字 以內의 漢字를 常用(1982년 9월 2일 敎育部 公布 4,808字)이니 次常用(1982년 12월 20일 公布 4,399字)이니 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各 知識人의 書架, 各 公共圖書館, 各級 圖書室, 漢字·漢文敎育 혹은 東洋學 從事者들이나 學父兄들에게는 이 정도 漢字의 字典이면 足하다고 생각한다.

2. 收錄 漢字는 訓蒙字會(1527년 3,360字), 新增類合(1576년 3,000字), 千字文(石峰 1583년 1,000字)와 四書諺解를 비롯한 諺解文獻(東國正韻式이 아닌 現實音〈聲調 포함〉에 나타나는 實用漢字와 字類註釋(1756년 10,800餘字), 字典釋要(1906년), 新字典(1915년) 등에서 추리고 文敎部(현 敎育部) 制定 基礎漢字 1,800字와 北韓敎育用 漢字 3,000字, 韓國語文敎育研究會 등 5個 學會(韓國國語敎育研究會, 韓國國語敎育學會, 韓國漢文敎育學會, (社)漢字敎育振興會)가 選定한 常用漢字 2,000字와 準常用漢字 1,500字 등도 참고로 하여 實用面을 重視하였다.

3. 本 字典은 國語敎育面이나 漢文敎育面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韓國語史나 意味論 분야의 開拓資料를 제공하는데 寄與할 것으로 기대한다.

本 字典의 槪要

本 字典에서 常用性 漢字는 물론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 北韓 敎育用 3,000字에 수록된 漢字는 모두 실어 그 標題字 數는 7,246字이며, 標題字의 字解內容에 언급되는 漢字(俗字, 本字, 古字 등 포함) 數는 康熙字典의 數를 넘는 것이며, 한글 古語字도 무려 2,500餘字가 넘는 點이 組版上 書體作業에 큰 어려움이 따랐음을 特記한다.

종래의 字典類가 部首別로 되어 있던 것이 常例인데 本 字典은 漢字音을 가나다順으로 하여 漢字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各 漢字音別로는

加 伽 架 枷 迦 哿 茄 袈 跏 嘉 駕 痂 癎……
己 杞 芑 紀 記 起 忌 跽……

와 같이 글자의 類型別로 配列하였다.

1. 標題字

1) 標題字形(略)
2) 標題字訓
   ① 訓의 傳統性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예) 地 따 지

三 석 삼

② 지나치게 守舊的인 것은 現代化하였다.

예) 戶 지게 호 → 집 호

會 모들 회 → 모일 회

③ 標題字訓은 代表的으로 널리 쓰이는 訓만을 보이기로 하고 使用頻度順을 고려하였다.

예) 經 1. 지날 2. 올 경

管 1. 주관할 2. 대롱 관

3) 標題音

① 標題字音은 널리 통용되는 音을 標準音으로 設定하였다.

② 한 標題字에 두가지, 세가지 音을 가진 것은 傳來文獻의 字解에 따라 代表音을 設定하여 標準音을 삼고자 했다. 但, 현재 두가지, 혹은 세가지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은 代表音을 먼저 配列하고 使用頻度順으로 배열하였다.

예) 見 1. 볼 견:

2. 뵈올 현:

設 1. 말씀 설

2. 달랠 세:

3. 기쁠 열

藥 1. 즐길 락

2. 노래 악

3. 좋아할 요:

③ 같은 뜻이면서 두 가지 讀音이거나 轉音, 訛音, 慣音이 있을 경우 「→」로 그 標準音이라고 생각되는 標題字로 보냈다.

예) 刺 척 → 자

則 즉 → 칙

4) 標題字의 聲調

東國正韻, 三韻聲彙, 全韻玉篇이나 新增類合, 千字文 등 字學書의 聲調는 傳統的이어서 中國韻書 그대로이다. 그 平聲, 入聲은 오늘날 短音이다.

그러나 訓蒙字會를 비롯 壬亂前 諺解文獻에는 당시의 現實 聲調를 반영하고 있어 오늘날의 長短音과 대체로 有關하다. 대체로 上聲이 오늘날 긴소리로 去, 平, 入聲이 짧은

소리로 이어져 聲調의 전통성이 유지되어 있는 것이다.

但, 그 의미에 따라 두 가지 聲調로 볼 수 있는 것은 ( )로 표시하여 보였다.

예) 便 편할편(:) 편~便利 便法 便安 便易

편:~便紙

5) 標題字의 字解와 引用文獻(總 104種)

① 標題字의 字解는 傳來文獻의 原典에 의해서 정확히 이를 引用하였고 字類註釋, 字典釋要, 新字典의 것을 全載하였다.(中略)

② 文獻의 引用 順序는 대체로 年代順으로 하였으나 利用者의 편의를 위해 訓蒙字會, 千字文의 각 板本을 하나로 묶고 壬亂前 文獻은 諺解文獻과 字學書別로 한데 모았다.

韓國漢字音訓變遷字典 體裁는 다음과 같다.

架(가:) 시렁. 가: 架空·一橋·一設·一가 書架·十字 一去(東6:18):가(宣孟2:18)실·에:가又造屋曰一又棚也(訓蒙比叙中7b)(訓蒙東大中14a)(訓蒙尊經)(訓蒙東國) 실에가(類合上24b) 시렁가(倭解上33a) 가去(三聲下12) 거리가杙也棚也屋一衣一(字類上90b) 시렁가 (兒學上9b) 〔가〕 棚也시렁가○起屋집세울가〔禡〕 (釋要上63b) 〔가〕 杙也所以擧物틀가락·장강틀○棚也사닥다리○衣一홰대○屋一실엉〔禡〕 (新字2:29b)

刻(각) 새길.각:刻骨·一薄一각 時刻·正一·彫一·遲一入(東1:1)一ᄀᆞᆨ(六祖序7):외골ᄀᆞᆨ俗稱時一晝夜百刻時分八刻子午各加二刻又一(訓蒙比叙上1b)(訓蒙東大上2a)(訓蒙東經)사길 〈以下上同〉(訓蒙東國)시ᄀᆞᆨᄀᆞᆨ·ᄀᆞᆨᄒᆞᆯᄀᆞᆨ(類合下37b) 사길ᄀᆞᆨ(光千23a)(石千) 사길긱鏤也(註千) 사길ᄀᆞᆨ(倭解下42b)·긱入(三聲下62)·식일긱鏤也晷一又一薄(字類上5b) 〔각〕鏤也색일각○晷시각각〔職〕 (釋要上10b) 〔각〕鏤也삭일〔爾雅〕 木謂之一○痛也몹시○割剝긁을○一薄慘毁이심할○각색할○晷一漏箭시각○害也해할 〔書〕我舊云一子○豕跡도야지발자국(職)(新字 1:15a)